

사진가사의  
판장

### 할아버지 제술 받으세요



민족대명절인 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난 3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에서 일찌감치 성묘를 나온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제 막 결혼마를 땀 꼬마 아이가 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레 할아버지께 올릴 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기록해 보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한 해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설날.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희망에 부풀어야 할 설이 탐탁지 않은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집을 향해 야 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친척들의 눈을 피해 도서관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자신들을 위해 노부부가 먼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귀성객들도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두툼한 설보너스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들도 많을 겁니다.

주말이 끼어 어느 때보다 넉넉한 설연휴를 앞두고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표가 동이 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즐거워야 할 명절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꼬마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될 미래에는 좀 더 포근한 설날풍경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채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의 유머

**▲주변이러사**  
학교에 불이 나서 모두 운동장으로 대피했다. 선생님은 혹시나 해서 인원체크를 했는데 2명이 없었다. 당황한 선생님은 반장을 불렀다. "반장, 두 명이 없는데 못 봤니?" 그때 교실 창문이 열리며 두 명이 소리를 쳤다. "반장! 주변도 나가야 돼?" 그러자 반장이 대답했다. "뒤라러 두 명이나 남았어? 한 명만 남고 빨리 나와!"

**▲속담을 바르게 알고 씁시다**  
-식은 죽 먹기→맛있다  
-10년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짜여보면 그런 나무는 있다  
-엷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겉으로 닦아 짜면 잡담을 수 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저녁에 이루어졌다. 아마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약에 안 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에게 잡아 먹힌다

**▲이름이 길어서**  
회사에 한 남자가 새로 입사했다. 사장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 남자를 불렀다. "자네 이름이 뭐가?" "김재입니다." "이것 보게. 여긴 막노동판이 아니고 회사네.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건 허용하지 않네. 그리고 나는 김재, 이씨, 박씨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말야네. 이름이 뭐지 다시 말해보게나!" "김 꽃사방발사방이요."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사장이 말했다. "좋아요, 김씨. 집은 어디인가?"

**▲무서운 아내**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온 꼬마가 엄마에게 물었다.

꼬마 : 엄마 바다에서 수영해도 돼요?  
엄마 : 물이 깊어서 안돼.  
꼬마 : 아빠는 수영하고 있잖아요?  
엄마 : 아빠는 보험을 들었잖니!

**▲점괘 때문에**  
어느 시골마을에 사는 점쟁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다. 그러자 질문을 받은 사람이 비웃으면서 말했다. "당신 점쟁이가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길을 물어봐 보든 될 것 아닙니까? 모르는 것이 없다는 점술가가 길을 묻다니..."

그러자 점괘가 점괘대 대답했다. "모르는 소리 마시오. 집을 나갈 때 점괘를 봤더니 여기까지 오거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물으라고 나와서 묻는 것이요."

**▲그런데 왜?**  
한 흑인이 하나님에게 물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검은 피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했다. "정글에서 밤 사냥을 할 때 안전을 보장해주고,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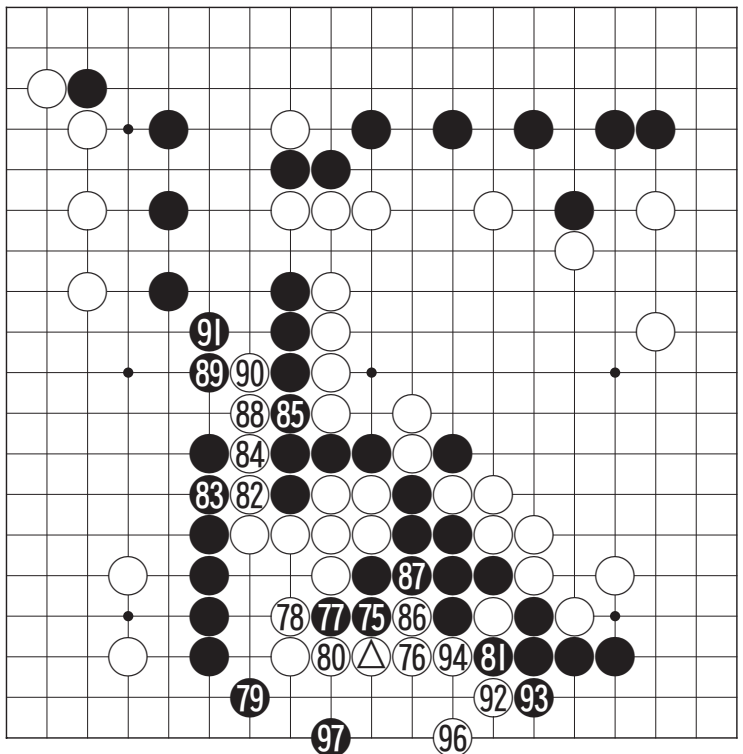
"그렇다면 제 머리는 왜 이렇게 굵글굵글 한 겁니까?"

"그건 자네가 정글 속을 뛰어다닐 때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네."

그러자 흑인이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물어보았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겁니까?"

**▲추위 때문에**  
북극탐험가와 남극탐험가가 모여 자신이 더 추운 곳에서 고생했다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북극 탐험가가 먼저 말했다. "우리가 북극에 도착했을 때 어찌나 춥던지, 솜불이 얼어서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더라니까!"

그러자 남극 탐험가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갔던 남극에서는 입으로 내뿜는 말이 모두 얼을 조각이 되어서 그걸 프라이팬에 녹이지 않고는 무슨 말이든 전혀 알 수 없더라고!"



**제5회 KBC사작비 유단자부 결승전**  
白 선민호 (효덕초등 6)      黑 이건희 3단 (월봉초등 5)

백 △ 자리 잡을 수 없게 잡지 않을 모양이 됐다. 이때 이건희군은 '살려줄 수는 없다'고 외치며 흑 75로 잡으러 왔는데 이 수가 진다면 패적이 됐을 대약수였다.

선민호군은 잡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백 76으로 늘고 말았는데 이 수가 또 덩달아 손을 맞춰주고 만 대약수이자 패적이 되었다.

현재 삶의 급소는 흑 79의 곳으로 흑 77도 이곳을 먼저 두어야 했으며 백 76으로도 역시 '참고도'처럼 백 1을 먼저 두고 3을 늘어야 했던

어떻게 두더라도 백이 사는 수는 보이지 않는다. 선민호군은 백 80부터 흑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96까지 처절한 두집내기를 시도했으나 흑 97에 이르러 백 대마의 죽음이 결정되었다. 이후의 수순은 두어분 데 불과하므로 총보로 미룬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한상훈·김승재 청룡 다름

한상훈 2단과 김승재 초단이 제5회 전자랜드배 청룡왕전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한상훈은 4일 서울시 한국기원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에서 유준상 6단을 백 불계로 꺾었고, 김승재도 윤혁 5단을 백 6집만 차로 눌렀다.

이들은 5일 같은 장소에서 맞대결을 펼쳐 우승컵의 주인을 가린다. 준결승 진출자들 중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윤준상은 8강까지 주어지는 왕중왕전 자동 출전권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이세돌 9단이 박승화 2단에게 일격을 당하는 등 박영훈·박정상·최철한 9단 등 강자들이 대거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명절 음식 얼룩제거

명절날 각종 음식 준비로 한복과 옷에 얼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효과적으로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한복의 얼룩**  
주방세제와 같은 중성 액체세제를 얼룩에 곧바로 묻히고 손으로 살살 문지른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급할 경우 물소독기를 사용해도 효과적입니다.

**▲침기름, 들기름 등 기름류**  
유용성 물질은 물로 세탁하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세탁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솔벤트를 뿌린 후 칫솔로 살살 문지른 뒤 빨아주면 됩니다.

**▲김치 국물**  
흰옷에 묻었을 경우 옷을 물에 담근 후 꼭 짜서 세제액을 발라주거나 칫솔에 락스를 묻혀 발라주세요. 양과즙을 바른 뒤 다음날 세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즙**  
산성인 과일즙으로 인한 얼룩에는 식초를 가체에 묻혀 두드러듯 닦아내고 중성세제로 세탁하세요.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2월 5일(음 12월 29일 乙亥)

子	36년생 해운의 발전이 있으니 하고 싶은 일을 추진. 48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60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긴다. 72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다. 84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b>행운의 숫자: 12, 30</b>
丑	37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49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조심하라. 61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73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85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접하는 격이나 이성문제는 조심하라. <b>행운의 숫자: 22, 34</b>
寅	38년생 생활의 무의미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0년생 임종모색을 하나 쉽지는 않다. 62년생 하는 일마다 불리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74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b>행운의 숫자: 14, 28</b>
卯	39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1년생 의외의 인상을 만날 수도 있다. 63년생 불연이던 친지로부터 파똥림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75년생 부부의 애이 소록소록 살아가라. <b>행운의 숫자: 24, 44</b>
辰	40년생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봐라. 5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워나 아내의 건강을 살펴봐라. 64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76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벌여놓은 신뢰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b>행운의 숫자: 21, 32</b>
巳	41년생 구실이 따르고 신체의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53년생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65년생 특별한 건강에 유념해야 뒤팔이 없으리라. 77년생 일 거수 일 무족을 조심하고 마음까지도 조심하라. <b>행운의 숫자: 18, 35</b>
午	42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4년생 재물이 같으니 생기기 중경의 마음을 가져라. 66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니 본인의 잘못이다. 78년생 서류와 뒷사람으로 인해 불만이 있으리라. <b>행운의 숫자: 16, 17</b>
未	43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55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67년생 기억이 쇠하니 패정을 살펴봐라. 79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으니 식술을 살펴봐라. <b>행운의 숫자: 01, 43</b>
申	44년생 일고는 있으나 좋은 날은 많지 않다. 56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68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80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면 대상이 있으리라. <b>행운의 숫자: 11, 41</b>
酉	45년생 처음 가는 길이나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 57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69년생 순풍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81년생 순풍과 역풍이 같이하니 균형을 잡으라. <b>행운의 숫자: 20, 38</b>
戌	46년생 주변과 어울려라. 58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마련된다. 70년생 불연이던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하니 부부간 연정을 삼가라. 82년생 급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급 변경도 우려된다. <b>행운의 숫자: 02, 31</b>
亥	47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결과는 조그맣다. 59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세히 살펴라. 71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사가 생길 수 있다. 83년생 일일과 배는 바가지 상사다. <b>행운의 숫자: 23, 42</b>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b>굿모닝 잉글리쉬 &lt;1091&gt;</b></p> <p>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car. 새 차를 한 대 구입할까 하는데요.</p> <p>A: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your savings? B: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car. A: Really? B: Yah, I've been needing one for a while</p> <p>A: 자네 저축한 돈으로 뭘 할 건가? B: 새 차를 한 대 구입할까 하는데요. A: 정말이에요? B: 예, 차가 필요했거든요.</p> <p>* savings : 저축액 * 새 바지 몇 벌을 살까 하는데요. = I'm thinking about getting some new pants. * 휴가를 갈까 하는데요. = I'm thinking about going on vacation.</p> <p>&lt;동아 외국어학원 제공&gt; www.donga.tv ☎ 222-6253</p>	<p><b>오하오우 니혼고 &lt;1091&gt;</b></p> <p>あしたは約束(やくそく)があるけど。 내일은 약속이 있는데</p> <p>A: 木村君(きむらくん)、明日(あした)富士山(ふじさん)にでも登(のぼ)ろうか。 B: あしたは約束(やくそく)があるけど。 A: ジャ、あさってはどう。 B: そうね。今週(こんしゅう)の土曜(どよう)なら都合(つごう)がいいけど。</p> <p>A: 기무라, 내일 후지산이라도 오를까? B: 내일은 약속이 있는데. A: 그럼, 모래는 어때? B: 글세, 이번 주 토요일이라면 사정이 괜찮은데.</p> <p>~にでも: ~이라도 登(のぼ)る: 오르다 あさって: 모래</p> <p>&lt;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gt; http://kglobal.wo.to ☎ 228-2545</p>	<p><b>니하오 쑹구위 &lt;68&gt;</b></p> <p>打错了 잘못 걸었어요</p> <p>A: 喂! 你是谁哪? Wéi! Nǐ shì ná wéi? 喂! 니 슌 누구? B: 姜老师在吗? Jiāng lǎoshī zài ma? 薑老師 슌 어머? A: 打错了。 dǎ cuò le. 잘못 걸었 B: 对不起。 duì bu qǐ. 미안 부처.</p> <p>A: 어로세요! 누구세요? B: 강 선생님 체세요? A: 姜老师 姜老师, B: 姜老师입니다.</p> <p>姜 [jiāng] 어로세요. 老师 [lǎoshī] 선생님</p> <p>&lt;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gt; ☎ 383-1605</p>	<p><b>한자 이야기 &lt;678&gt;</b></p> <p>甘로(甘露) 달 감, 이슬로</p> <p>甘로(甘露)는 단 이슬이라는 뜻으로, 범어(梵語)로 불로장생의 음료를 뜻하는 아무르타(amrta)를 한역한 말이다. 이 음료는 회람 신화에 나오는 암브로시아(ambrosia)와 어원을 공유한다.</p> <p>고대 인도의 불교에서는 제천(諸天)이 불덕(佛德)을 찬미하여 감로를 내리게 한다고 한다. 감미로운 불사(不死)의 약이라 하여 불교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교법(教法)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는 천자의 어진 정치에 대해서 하늘이 내리는 상서로운 징조를 감로라고 하였다. 한역불경에 나오는 감로(甘露) 표현은 바로 아무르타를 번역한 것으로, 불사(不死)의 실현, 즉 열반(涅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p> <p>한편 감로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인다. 좋은 술과 달고 맛있는 것을 비유하는 데 널리 쓰이며, 보통 목이 무척 마를 때 시원한 물 한잔을 '감로수'(甘露水)라고 하기도 한다. 또 초목을 적서주는 단비를 '감로의 비'라고도 하고, 그 밖에도 여름에 단풍나무, 팬나무, 떡갈나무 등의 나뭇잎에서 나오는 달콤한 즙을 의미하기도 한다.</p> <p>&lt;한여원(韓余媛)&gt;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